



도민 염원 모아 새만금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새만금 유치위원회 발대

유희열 전 과기부 차관
민간위원장으로 위촉
새만금청·군산시 등과
공동유치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6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1조2,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유치를 시동을 걸었다.

발대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본보 조보성 대표도 참여했다.

특히 유희열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되며 행정과 전문가가 손잡은 유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치위원회는 과학기술계 인사, 대학 총장, 지방의회,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등 38명의 상임유치위원과 기획·정책·기업·홍보·대외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회는 동향 파악 및 관계자 설득, 평가 대응, SNS 홍보, 지역 강점 부각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



6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발대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등이 공동위원장 및 유희열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유치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17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동유치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청, 군산시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전북대·군산대 등 도내 대학과 연구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부지 용지관리 및 공급, 전문 인력양성, 산학협력 등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공감대 형성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업무협약 체결 후 이어진 위촉식에서는 신형식 전 기초과학연구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으며 유치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신형식 상임 유치위원은 "14개 시군도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전북으로 유치하겠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의 강점을 설명하며, 새만금 후보 부지가 2027년부터 대규모 연구시설 착공이 가능하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이 국가 재생에너지 R&D 실증 허브로서 핵융합과 연계한 청정에너지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희열 민간위원장은 "인공태양은 인류의 궁극 에너지원으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어 예상보다 빨리 상용화 될 것으로 본다"며 "전북에 관련 시설을 유치하여 미래에너지 거점으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은 대규모 단일부지와 연구시설에 필요한 기

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입지"라며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만큼, 도민들이 힘을 모아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오늘 모인 분들이 뜻을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유관 기관과 협력하며,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군산=김만호 기자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진짜 지방시대 실현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중기부, 개편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진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특화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은 전통산업 중심의 중규모 특구로,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협업화해 지역 상권과 연계한다. '융합 혁신형'은 문화·기술 등 신산업 중심의 특구로, VR·AR 기술과 같은 첨단산업을 접목한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한다. '도전 도약형'은 인구발소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크리에이터나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직접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우수 특구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집값 안정·주택 원활한 수급 위해 '전력질주'

전북 출신인 김문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들의 집값 안정과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일 부동산 및 건설업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 일선 건설현장을 누비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의 집값 안정을 위해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김문덕 국토부장관, 서리풀지구 2만호 건설사업 현장 방문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2만호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 사업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026년 상반기에서 내년 3월로 조정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 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내년 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금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리풀 지구는 지난 20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절차 조기화를 적극 추진해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김문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2만호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장수군의의회
JANGSU COUNTY COUNCIL

